

보살의 길

2010년 가을호 제 43호



제 7회 노인의 날 기념 운동회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박혜정
생활지도원

아름다운 인생

며칠 전 양로원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70대 후반에 양로원에 오신 어르신은 올해 96살이 되었다. 20년 가까이 양로원에서 생활하신 것이다.

처음 어르신을 만난 것은 내가 20대 중반에 양로원에 취업을 했을 때였다.

그 때 어르신의 모습은 옥색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허리에 끈을 묶고, 머리는 쪽을 쥘으며 버선을 신고 고무신을 신고 계셨다. 정원에 나와 계실 때면 감나무 밑에서 누굴 기다리는지 뒷짐을 지고 대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니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난다.

젊었을 때 서울 사대문 안에 살았다고 하시던 할머니였다.

어르신은 종가집 마나님같이 항상 단정히 한복을 입던 모습이 돌아가셨을 때 왜 자꾸 눈앞에 보이는지...

양로원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셔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게 메말라 버렸다고 여겼는데 어르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울컥해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내가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고 반복하였고, 가족들에게도 내일 죽을 것 같으니 오늘 왔다 가라를 반복하여 어르신 말씀에 가끔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하시고, 죽어도 기저귀에 대변을 볼 수 없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엉덩이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올라가지 못해 고생을 하셨다.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니 기저귀에 보셔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화장실에 가셨다.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눈도 뜨지 못하고 식사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으로 모셨다.

어르신도 삶의 변화에 적응하여 블라우스와 고무바지를 입으셨다. 그러나 돌아가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명 버선이었다. 삼오제를 지내고 짐을 정리할 때 어르신의 버선 두벌이 나란히 나왔다. 서로 번갈아 신으셨던 것이다.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의 모습은 세상의 변화로 같이 변해갔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남은 것은 버선 밖에 남지 않았다. 좋은 양말을 드려도 싫다 하시고 끝까지 버선을 고집하였다. 세탁기에 같이 넣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손으로 비벼 빨아 반듯하게 만들어 신었던 버선이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께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던 흔적으로 여겨져 슬퍼지기도 했지만, 사고가 아닌 생로병사를 겪고 가신 어르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중반에 접어든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며, 한 생을 살아낸 사람의 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삶을 마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부처님께 매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시던 어르신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으며 부처님 안에서 극락왕생하기를 기도해 본다.

귀뚜라미 우는 가을 달빛에 앉아 예명 양로원을 회상하며...

임 주 하
우담바라 자원봉사팀 회원

나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요보호(要保護)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들의 복지시설인 예명 양로원을 접하게 된 계기는 인법스님 인연을 통해서이다.

나와 인법스님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오대산 상원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상원사 주지 스님이신 인광스님의 유발상좌였다.

그래서 상원사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다. 마침 선방스님들의 하안거 결제였다. 자연스레 나는 하안거 결제기간 동안 스님들 시봉을 하게 되었다. 결제가 한창 발효가 될 때쯤 나는 산책을 했었다. 내가 즐겨가는 산책길에서 인법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합장만 하고 지나치려고 했었는데, 인법스님께서 동행하자고 해서 답소를 나눴다. 답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인법스님은 우담바라는 봉사단체를 알려 주셨다. 평소 나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기에 어떠한 곳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클릭했고 우담바라가 어떠한 단체인지부터 살펴봤다.

우담바라는 3000년에 한 번씩 피어나는 꽃이기도 하지만, 세 분의 스님(三僧會)께서 불법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시고자 설립한 자비 나눔의 단체로서 전국의 여러 수행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활동 및 불교 수행정진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단체였다.

나는 의도도 좋고 인법스님도 좋고해서 예명 양로원에서 한 달에 한번 있는 우담바라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 육안, 뇌안으로 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순간 아름답지 않은 육신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내게 있어 못 볼 걸 본 마냥 비위가 약해서 거북스러웠다. 매달 이분들을 봐야 한단 말인가? 나는 절망적이었다. 그렇게 몇 달은 언제든 도망치듯 눈치만 살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니 어느덧 나는 육안, 뇌안이 아닌 심안, 영안의 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삼라만상이 왜 이토록 아름답고 눈물겨운지 부처도 흠날리고 있구나! 느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면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봉사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예명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크게 느낀 바는 봉사활동이라는 명찰을 달지 말자는 거다. 그거 자체가 이미 봉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놀부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자고로 진흙 봉사란 흥부의 마음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흥부는 다친 제비를 너와 내가 아닌 합일인 내 아픔으로 여겼다. 그래서 도와줬다. 하지만 놀부는 내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너와 나로 나눠서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놀부는 벌을 받았고 흥부는 복을 받았다. 그것은 즉, 너와 내가 아닌 대상과 합일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의식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도와 드리는 봉사가 아닌 대상자와의 합일된 모습으로 자원활동을 하는 나를 그려본다.

혜명 양로원을 다녀와서

맨 처음 혜명양로원에 도착해 들어서면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시는 할머니들이 보인다. 우리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는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이곳에 오는 의미가 더욱 가치 있고, 훈훈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할 때는 괜스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사실 나는 조부모님께서 네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이곳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볼 때 마다 마음이 애뜻하다. 모든 분들이 마냥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인 것 같다. 그래서 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던 힘이 드는 걸 느끼지 못하겠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양로원을 나갈 때에는 뿌듯하고 다시 올 날을 기약할 수 있어 나처럼 뿌리는 햇살이 파사롭다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지만 게시판에 붙여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즐거운 여가활동 모습들을 보면 또 기쁘다. 많은 분들의 후원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일하기에 외람되나 그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게 바로 타인을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혜명양로원에서 나는 단순한 청소를 한 것이 아니다. 이곳에 옴으로써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 나중에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그분들과 또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가 되고자 한다.



오민지
동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은혜
동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나를 변화시킨 양로원

2009년 5월 셋째주 토요일,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 학년 몇 명은 떨리는 마음으로 혜명양로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평소 무섭다고 소문난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겁을 먹고 있었다. 게다가 양로원 봉사는 처음이라 행여 어르신들께 실수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을 때 걱정이 무색할 만큼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무엇보다 함께 하던 언니들이 당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의 매력은 일을 다 끝나고 건물을 나올 때에 있는 것 같다. 봉사를 하면 뿌듯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알고만 있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고등학교에 올 때까지 이러한 뿌듯함을 느낀 적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힘들었다. '힘들기만 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왜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땀이 나고 힘들어도 개운해지기 위해 운동하는 것과 같았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위해 땀 흘렸다는 생각에서 오는 뿌듯함이 내가 양로원 봉사활동을 계속 하는 이유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남을 위해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헌혈을 하러 가거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언제나 게으름이 의지를 이기고 말았다. 그런 나에게 혜명양로원 봉사활동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남들 다 하니까, 그리고 일단 시키니까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해명한마당



| 영화관람 |

7월 20일 롯데씨네마에서 마음이2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영리한 마음이와 새끼 강아지의 모험을 그린 영화를 보며 어르신들 함께 울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봉숭아 물들이기 |

8월 12일 햇살이 뜨거운 여름 마당엔 봉숭아 꽃들이 한창입니다. 봉숭아 꽃과 잎을 따서 백반을 넣고 다져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손톱과 발톱에 수줍게 봉숭아 물을 그려 드렸습니다.



| 버블쇼관람 |

8월 17일 신도림아트홀에서 물방울 쇼를 관람했습니다. 아이들 틈에서 물방울을 잡으려고 손을 뻗쳐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깊게 아름다웠습니다.



| 연극관람 |

8월 25일 명동예술극장에서 드라이빙미스 데이지를 관람했습니다. 오랜만에 명동으로 나들이도 가고 연극도 관람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소방교육 |

9월 6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내방하여 소방교육을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늘 반복되는 교육이지만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모두 집중하여 열심히 듣는 시간입니다.



| 송편빚기 |

9월 20일 할머니들이 모여 송편빚기 송씨자랑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송편이 제일 이쁜가 보며 서로 즐거운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송편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 추석제사 |

9월 22 추석아침 어르신들이 합동으로 추석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두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3~4명씩 짝을 지어 조상님께 제를 지냈습니다.



| 마트쇼핑나들이 |

9월 29일 홈플러스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사전에 필요한 물건을 생각하여 하나씩 구입했고 푸드코트에서 각자 좋아하시는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도 했습니다.



| 가을운동회 |

10월 8일 노인의 날 기념 운동회를 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운동회는 풍선터뜨리기, 장애물경기, 고리던지기 등으로 진행되었고 시종 상기된 얼굴로 긴장하며 이겨려는 모습이 도리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늘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 ▶ 총 16명
- 원장1명/ 사무국장 1명/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생원 1명/ 서무 1명
- 조리원 3명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 ▶ 총 58명 (할아버지 : 27명 할머니 : 31명)



- ◀ 9월20일 서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경하 현성큰스님 주관으로 여성분과에서 방문하여 갈비찜 대중공양과 간식거리, 생필품 등 150여 만원을 후원해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

2010년 7월 1일 ~ 9월 30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 유미애, 유른경, 한미정, 양영진, 김경은(밀그림색칠), 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성은(건강체조), 백련사올림회, 묵향법사, 지영옥, 최미자, 이순교, 김덕순,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 임길자, 황복순, 이금분, 민귀남(찬불가봉사팀),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자(반야회3기), 오정자, 유범열(아코디언), 대한적십자사, 하정자, 송길숙, 오우리, 박미자, 엄숙희, 심은숙, 권태숙, 김진화, 이은경, 박애하, 마경숙, 이은경(반야회4기), 이유숙, 이미화, 송영순, 주양희, 신종일, 박현주, 박향자, 신경이, 황현숙, 박지혜, 정진숙, 안형준, 김종윤, 박상준, 최태영, 김재형, 이준호(반야회5기), 박미란(말벗), 김동섭,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안성수(우담바라), 이정순, 고병남, 권영순, 김미정, 박미옥, 전선순, 소미숙, 한종남(민들레모임), 양병순, 남숙호, 장재창, 현군자(수지침), 이강택, 양송학, 임효정, 황영이, 이정애, 한미옥(알송달송구연동화), 백은자, 장은정, 이은경, 변상숙, 이영미, 임은영, 민현숙, 정용경, 이효숙, 김계숙, 한성아, 홍성정, 김민순, 김용자, 정수정, 이은순(반야회6기)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조재화 수원진천스님 안양원각스님 흥사랑단체 광덕사 찬불가해명회 반야회5기 금천푸드뱅크 백련사 반야회4기 송도글로벌대학컴퍼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보라매법당 금천구의회 서서울과학고 기업은행 권태인 셋별어린이집 사랑의실천운동본부 색칠자원봉사팀 백산초 6학년 c)텔레믹스 영재혁 변상진 독지가 우리파이낸셜 서대문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후원금품

윤재순 9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문금자 40,000	박두영 200,000
구수미 200,000	구봉순 2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80,100	이정호 20,000	서현종스님 20,000	
(주)한국거래소 600,000	김기영 300,000	이애자 30,000	한태규 100,000	한진택 300,000	
은선사 30,000	강윤호 100,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안효주 600,000
기업은행 500,000	마희전 60,000	영등포교도소 200,000	유원조 10,000	박세진 30,000	
이순자 60,000	유석하 15,000	이명희 30,000	황준순 15,000	김송희 25,000	서경연 10,000
남분식 150,000	황재욱 15,000	반야회5기 300,000	문성연 60,000	오정주 10,000	박현우 20,000
이모디콘독지가 325,000	서대문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10,000				김동욱 20,000
황효제 20,000	안형준 20,000	정수환 20,000	김성훈 20,000	맹효진 20,000	노형석 20,000
김종윤 20,000	박상준 20,000	최태영 20,000	이지용 20,000	정치원 20,000	이동석 20,000
이동민 20,000	장선우 20,000	김태준 20,000	조방희 20,000	박성자 15,000	김용태 10,000,000
조태진 10,000	신호식 40,000	이정목 20,000	이혜정 60,000	이선주 5,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중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중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중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